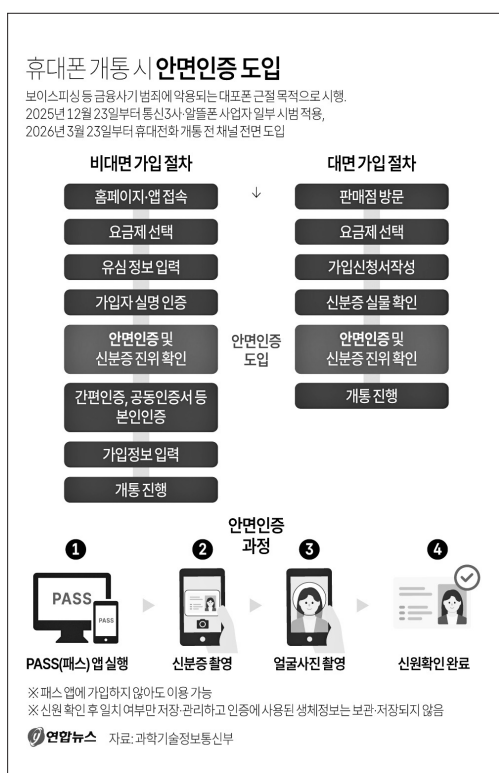


# 휴대폰 개통에 안면 인증 도입...정부 “유출 걱정 없다”



##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대조...결과 값만 보관

### 내일부터 시범적용...보이스피싱 대포폰 차단 목적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이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으므로 지나친 걱정이라고 강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 과제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반사회 실현’과 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안면 인증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지만,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분증

위조나 명의대여 등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자 당국과 통신업계는 대포폰 개통을 막을 목적으로 알뜰폰 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도입하게 됐다.

안면 인증이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전면 도입되는 것은 내년 3월 23일부터로 예정하고 있다.

이달 23일부터는 43개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적용 대상 알뜰폰 사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패스 앱을 열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 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 저장되지 않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부에 의한 ‘빅브라더’ 감시 가능성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 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오미 등 국내서 판매되는 중국 제조사의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쓰이므로 특별히 정보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에 사용되는 솔루션은 1급 유권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라며 “키카오뱅크, 토스 등의 비대면 이용 시 신분증과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본인임을 인증받는데, 특별히 휴대전화 개통이라고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으로 강력히 제재한다. 연합뉴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NEXT K 2026’ 행사를 열고, 2026년 콘텐츠산업 전망과 내년도 지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략 공개

내년 예산 8.2% 증액 7050억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가운데 연구개발(R&D)과 해외 추진 전략이 공개됐다.

콘텐츠진흥원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NEXT K 2026’ 행사를 열고, 2026년 콘텐츠산업 전망과 내년도 지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NEXT K 2026’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된 지원사업 설명회와 콘텐츠산업 결산·전망 세미나를 처음으로 통합한 행사로, 콘진원은 이번 통합 개최를 통해 내년도 예산과 주요 지원사업, 산업 전망을 제시했다.

콘진원은 내년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7050억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콘텐츠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454억원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게임 분야 101억원, 해외 진출 지원은 8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콘진원은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콘진원은 또 2026년 연구개발(R&D), 방송영상, 게임·신기술, 지식재산(IP), 콘텐츠 기반 조성, 콘텐츠 수출 등 분야별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핵심 전략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신기술 분야는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 대전환과 함께 콘텐츠 제작 현장의 인공지능(AI) 도입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

니루=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증권사 2조 벌 때 서학 개미 절반은 울었다

증권사들이 공격적인 해외주식 영업으로 올해 ‘역대 최대’인 2조원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절반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에 문제가 발견되면 현장검사로 즉시 전환해 영업중단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과도한 해외주식 거래를 유발하는 특정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 2곳을 현장점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과도한 해외주식 영업으로 증권업계는 큰 수익을 벌어들인 반면 개인투자자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올해 1~11월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1조950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가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지난해 연간 수익(1조245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2023년 연간 수익(5810억원)의 3배 이상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벌어들인 한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핵심 전략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신기술 분야는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 대전환과 함께 콘텐츠 제작 현장의 인공지능(AI) 도입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의 손실 규모는 올해(1~10월) 3735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3000억

개인투자자 해외 주식 손익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손실계좌 비중	46.3%	58.5%	27.7%	29.7%	49.3%
계좌당 수익	2.0백만원	△4.6백만원	2.5백만원	4.2백만원	0.5백만원

##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역대 최대’

금융당국, 영업문제 발견 시 현장검사 대응

~4000억원대를 유지 중이다.

증권업계는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등 해외투자 고객유치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거래금액과 비례한 현금지급, 수수료 감면 등 공격적 이벤트를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증권사는 영업점·영업부서 성과보상(KPI)에 해외주식 실적 관련 별도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해외투자 영업을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해외투자는 환율변동 리스크, 국가별 시차에 따른 권리자금 지연, 과세체계 차이 등 리스크가 있음에도 증권사는 국내투자자에 비해 위험성 고백 인내가 부족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과장 광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투자자 위험수용 능력에 안 맞는 투자권유 등 정황이 확인되면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부 증권사를 선정해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검사도 착수했다. 성과보수 체계상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대목이 있는지, 투자자 위험 고지가 적정했는지 등 투자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해외투자 신규 이벤트와 광고는 내년 3월까지 중단하고, 과도한 거래(과당매매)를 유발할 수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내년 1분기 중 추진한다.

증권사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도 해외투자 관련 마케팅, KPI가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자제시키기로 했다.

증권사 거래 플랫폼인 홈페이지·앱(MTS) 팝업 등으로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

환율 안정책 발표...“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도 지급”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중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 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외화 지급준비금 부리도 외화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도에 예치하는 돈이며, 부리는 한은이 이 돈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되고, 이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으로 국내 외화 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를 비금융기관과 개인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번 조치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연합뉴스

## 석유화학업계 재편안 일제히 제출

여수서 여천NCC·롯데케미칼 통합 검토

정부가 정한 석유화학 구조조정안 제출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업계가 감축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 조정안 제출을 마무리했다.

대산에 이어 국내 최대 석화단지인 여수, 그리고 올년까지 사업 재편 계획이 마련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최대 370만 규모의 나프트분해시설(NCC) 감축 목표 달성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지난 19일 오후 산업부에 재편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기업이 이날 중 제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여수산단 내 GS칼텍스와 협력해 재편안을 마련한다. LG화학은 총 200만t 규모의 NCC 2기(1공장 120만t, 2공장 80만t)를, GS칼텍스는 90만t 규모의 NCC 1기를 가동 중이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이 합작법인(JV)을 설립한 뒤 설비가 노후하고 GS칼텍스 공장과 거리가 먼 LG화학 1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재편안에 담은 것으로 예상된다.

여천NCC의 재편안에는 현재 가동 중 단 상태인 3공장(47만t) 폐쇄와 함께 롯데케미칼과의 통합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여천NCC 1공장(90만t)·2공장(91만5000t), 롯데케미칼 여수공장(123만t) 가운데 하나를 추가로 폐쇄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최소 137만t에서 최대 170만t 감축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대산산단에서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 케미칼이 가장 먼저 지난달 구조조정 계획을 공식화했다. 양사는 110만t 규모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을 폐쇄하는 재편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이번에 한화토탈(152만5000t)과 LG화학(130만t)도 공동 구조조정 또는 협업 모델을 검토해 재편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산단에서는 SK지오센트릭(66만t), 대한유화(90만t), 에스오일(18만t) 등 3사가 보스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공동으로 재편안을 낸다.

이들 기업은 다운스트림 최적화 방안을 우선 도출한 뒤 NCC 감축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가 제출한 이번 재편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정부 목표치를 충족하거나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석유화학 구조 재편의 핵심 목표로 에틸렌 기준 최대 370만t 규모의 공급 과잉 해소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용 및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 규모가 정해지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는 구조조정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연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